

첨단기술산업은 지식경제의 기둥

리 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첨단기술산업은 지식경제의 기둥입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 총화보고》 단행본 48페이지)

현시기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첨단기술산업을 창설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 첨단기술산업이 지식경제의 기둥으로 되게 하는것이다.

첨단기술산업을 지식경제의 기둥으로 되게 한다는것은 첨단기술산업을 창설하고 확대강화하여 그것이 지식경제의 기본구성부분으로, 주력산업으로 되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첨단기술산업을 지식경제의 기둥으로 되게 하는것은 우리 나라 첨단기술산업발전의 총적목표로 된다.

첨단기술산업의 일부 부문들이나 창설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를 첨단기술산업으로 꾸려진 강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로 전환시켜 그것이 경제강국건설에서 실질적으로 큰 은을 내게 하여야 한다.

첨단기술산업발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첨단과학기술발전에 대한 투자를 늘이는것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사업은 많은 자금지출을 요구한다. 더우기 과학기술의 정수를 이루는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는 방대한 투자가 필수적으로 제기된다.

첨단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투자에서는 중점투자대상을 바로 정하고 그에 대한 투자를 늘여야 한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발전을 앞세우면서 우주기술, 핵기술, 해양공학과 기초과학발전을 따라세우는것은 우리 당이 과학기술발전에서 내세우는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는 이 분야를 중점투자대상으로 정하고 투자를 늘여야 한다. 그래야 첨단과학기술의 모든 분야가 빨리 발전할수 있으며 전반적과학기술발전에서 돌파구가 열리게 된다.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에서 기본은 국가투자이다.

국가투자를 늘여야 첨단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투자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으며 중점대상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에서도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여나가야 한다. 그것은 첨단과학기술이 전반적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의 기본고리로 되며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투자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여주기때문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에서 평균주의를 하지 말고 첨단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대담하게 늘여나가야 한다.

국가투자와 함께 기업체자체투자도 늘여나가야 한다.

기업체자체투자는 기술발전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기업체자체투자는 국가투자부담을 덜어줄뿐아니라 기업체의 특성에 맞게 투자를 효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

오늘 세계적으로 볼 때도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기업체자체투자의 비중이 높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순소득의 일정한 부분을 과학기술발전비로 쓰도록 하는것과 함께 응용과학연구기관들에서 반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지적제품류통을 자체로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국가의 재정부담이 덜어지게 되었고 지방예산과 기업소순소득에 기초한 투자원천의 다양화가 보장되게 되었으며 기업체자체투자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기업체들과 응용과학연구기관들은 온갖 가능성과 예비를 최대한 동원리용하고 경영활동에서 독자성과 창발성을 발휘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업체자체투자를 늘여나가야 한다.

첨단기술산업발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첨단기술산업을 장려하고 우대하는 국가적대책을 세우는것이다.

첨단기술산업을 장려하고 우대하는것은 새로 창설되는 첨단기술산업을 보호하고 그것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첨단기술산업을 장려하고 우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이 부문에 대한 재정적특혜를 보장해주는것이다.

첨단기술을 연구하는 연구부문과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첨단기업체들에 국가납부액비를 낮추어주거나 재정적지원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나라의 자원을 수출하는데 대하여서는 관세를 높이 적용하여야 하지만 첨단제품이나 지적제품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낮추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첨단기업체들에 자금공급과 융자에서의 우선권과 특혜를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첨단제품기준을 바로 정하여 첨단제품등록을 정확히 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일반적으로 첨단제품이 첨단산업부문에서 나오는것으로 되어있지만 구체적으로 볼 때 일반기업체들에서도 개발될수 있는 조건에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첨단제품을 국가적으로 처음 생산하는 제품과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수입하던 요소, 시약, 재료, 기구, 설비들가운데서 해당한 기술적지표들을 보장하면서 국산화한 제품 그리고 첨단과학기술의 원리와 방법에 의하여 제품의 질과 기능을 훨씬 개선한 제품으로 규정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도달한 제품을 첨단제품으로 등록하고 이러한 제품과 그것을 생산하는 기업체들에 대하여서는 여러가지 우대와 특혜를 실시하는것이 필요하다.

첨단기술산업을 장려하고 우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이 부문기업의 활동에 유리한 경제적조건을 지어주는것이다.

첨단과학기술연구단위와 생산단위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우선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계획화를 비롯한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바로세우고 그 집행에서 강한 규률을 확립하며 첨단기술연구단위와 첨단기업체들에서 생산한 첨단제품에 한에서는 규격승인, 생산허가, 가격제정, 계획화 등에서 우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첨단산업부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 부문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야 한다.

첨단기술산업발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첨단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인재 확보와 대외교류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사람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인재의 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서는 인재육성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첨단과학기술을 소유한 인재를 성과적으로 육성하자면 국가가 교육발전전략을 바로세우고 이 집행을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교육발전방향과 목표를 첨단과학기술인재양성의 견지에서 바로세우고 교육체제와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반영된 첨단과학기술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재육성대책을 바로세우고 그 집행을 일관하게 밀고나감으로써 인재강국화의 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

첨단과학기술발전에서 대외교류를 강화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선진과학기술이 어느 나라에서 연구개발되었든 그것은 다 인류공동의 재부로서 나라들사이의 과학기술교류를 통하여 널리 보급되고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것이 세계과학기술발전의 일반적경향이다. 다른 나라들과의 과학기술교류를 강화하여야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제때에 알수 있으며 과학연구사업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 자금을 절약할수 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이 가지는 의의를 똑똑히 인식하고 대외교류를 통하여 첨단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현시기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국제적인 과학기술교류에서 중시되고있는것은 유연형태의 과학기술교류이다.

공장일식 또는 기계설비, 부분품의 교류 등을 경질형태의 과학기술교류라고 한다면 특허권, 기술비결의 교류, 기술자나 전문가의 초빙, 류학생이나 실습생의 파견 등을 유연형태의 과학기술교류라고 한다.

대외교류를 통하여 공장이나 기계설비, 부분품을 들여온다면 과학기술발전은 그에 국한되게 되지만 류학생이나 실습생을 파견하여 기술인재를 양성하거나 특허권을 구입한다면 더 폭넓고 고급한 기술을 소유할수 있다.

그러므로 대외교류를 통한 과학기술교류에서는 다른 나라의 공장이나 기계설비를 일식으로 들여오는 형식이 아니라 인재를 양성하거나 기술을 들여오는 형식의 교류를 강화하는데 모를 박아야 한다.

이와 함께 합영합작을 통한 과학기술교류도 강화하여야 한다.

합영합작을 하면 선진과학기술을 쉽게 받아들일수 있을뿐아니라 자금문제도 해결할수 있다.

첨단기술산업발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첨단기술산업기지들을 창설하는것이다.

첨단기술산업기지를 창설하는것은 과학기술과 생산을 결합시켜 첨단과학기술의 산업화를 추동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되고있다.

첨단기술산업기지를 창설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그 형태를 바로 정하는것이다.

첨단기술산업기지의 형태를 크게 보면 과학도시, 공업지구, 첨단기술지구 등으로 갈라볼수 있는데 이러한 매개 형태들은 자기의 고유한 특징과 우단점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요구하는 목적에 맞게 그 형태를 바로 정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첨단기술산업기지형태를 바로 정하는데서는 대학이나 연구소들이 집중되어있는 정도, 해당 공업부문이 집중되어있는 정도 등을 지역적으로 옹게 고려하는것이 중요하다.

대학이나 과학연구기관들이 비교적 집중되어있는 곳에는 과학도시형식으로 꾸릴수 있으며 일정한 공업부문이 집중되어있는 곳에는 공업지구형식의 첨단기술산업기지를 꾸릴수 있다.

첨단기술산업기지를 창설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이 과정을 다그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는것이다.

첨단기술산업기지를 꾸리는 지역의 전기, 수송, 체신을 비롯한 하부구조건설에 국가적 투자를 집중하여야 하며 과학연구활동과 생산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갈수 있는 경제적, 법적 조치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다른 나라의 과학연구기관과 첨단기술산업체들을 인입시키기 위한 대책도 따라세워야 한다.

우리는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경제를 첨단기술산업을 기둥으로 하는 지식경제로 전환시킴으로써 이 땅위에 하루빨리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워야 할것이다.